

일본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교과서 왜곡을 즉각 시정하라!

-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민국 교육부 대변인 성명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3.24. 화)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 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는 기술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며,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 국민 독도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담당 부서	학교정책관 동북아역사대응팀	책임자	팀장 이상모 (044-203-7040)
		담당자	교육연구관 우상수 (044-203-7042)
		담당자	교육연구사 조태호 (044-203-7045)